

국내외 사례를 통한 소외계층 음악영재 교육방안 연구*

류 지 영**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소외계층 음악영재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국내외의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음악영재교육 프로그램이나 음악교육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국내외의 소외계층 교육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음악을 접할 기회를 확보하여 소외계층 아동이 음악적 재능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외 프로그램들을 살펴본 후, 소외계층 학생들의 음악을 접할 기회 확대, 음악영재 프로그램의 선발요건과 방식, 부모의 참여, 전문가관과의 연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담당 강사들에 대한 사전교육 등 소외계층 음악영재들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소외계층 음악영재, 소외계층 음악교육, 음악교육, 음악영재

* 본 논문은 「2022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중장기 발전방안 시범적용 연구」에 기고한 원고를 기반으로 재구성하였음.

**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영재정책센터장, jryu01@kaist.ac.kr

I. 시작하면서

피아노 연습곡으로 유명한 체르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상류계층의 음악교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길렀다. 그의 여러 제자들 중 가장 유명한 제자는 프란츠 리스트라 할 수 있다. 어느 날 리스트의 아버지는 어린 리스트의 교육을 위해 체르니를 찾아왔다. 당시 리스트 가족의 경제 사정은 좋지 않았다. 하지만 체르니는 리스트의 재능을 눈여겨보고, 교육비를 받지 않고 피아노를 가르쳐주었다. 성인이 된 리스트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파리에서 공연할 때 체르니가 작곡한 곡들을 자주 연주하였고, 1852년에 출판된 그의 유명한 '12개의 초절기교 연습곡'을 스승인 체르니에게 헌정하기도 하였다. 연주와 작곡으로 유명해지고 난 후 리스트는 많은 동료들과 후배 작곡가들의 스승이자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였고 각종 음악 사업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헝가리의 수많은 대작곡가를 배출한 헝가리 국립 음악학교(Hungarian National School of Music) 또한 리스트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체르니의 리스트에 대한 지원이 많은 음악가들에 대한 지원으로 커졌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정한나, 2012).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영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타고난 재능이 있으면 어떤 경로를 거치든 언젠가는 재능이 발휘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도움과 기회의 포착으로 재능을 꽃피운 영재들의 이야기만이 역사에 남아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재능을 인식조차 못한 채 사라진 미성취 영재들의 이야기가 더 많을 것이다.

현재 예술 분야의 교육은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이현주, 이미나, 이화선, 2010). 음악교육의 경우,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가정의 아동들은 접근조

차 힘이 든다. 소외계층 가정은 여러 상황으로 인해 음악영재들의 잠재성을 계발해야 하는 시기를 놓치거나, 적절한 시기에 음악적으로 자극받을 환경이나 기회를 얻지 못해(원영실, 2012), 음악적 영재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사장시키기도 한다(김성혜, 2012). 음악적인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면, 개인 레슨과 훈련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고비용의 교육비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음악은 부유층이나 소수 엘리트 집단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고 있다(김성혜, 이경진, 2014). 음악적인 재능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필요한 악기를 마련하는 일이나, 음악 훈련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박수민, 진석연, 2019). 미국에서도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은 악기를 익히는 과정과 공립 및 사립 음악 교육프로그램에서 소외되어 있다. 저소득층 가정은 중상층 가정보다 악기를 익힐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음악적 활동에 덜 참여하며, 음악회를 가는 등의 경험을 가질 기회가 적다(Amos, 2021). 이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음악적 잠재력을 지닌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의 재능 발휘를 도와주고 있다. 유서깊은 음악학교나 시립 오케스트라에서는 직접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음악을 제공하거나, 전문음악인들의 레슨 등으로 소외계층 학생들의 재능을 꽃피울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음악분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음악을 접할 기회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과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음악영재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발 방법이나 접근 방식은 소외계층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김지혜, 2016). 이에 본 연구는 소외계층 음악영재들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재능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외의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교육 및 음악영재 프로그램들을 살펴본 다음 시사점을 찾아, 소외계층 음악영재들을 위한 효과적인 발굴 및 육성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II. 이론적 배경

1. 소외계층 음악영재는 누구인가?

소외계층은 대체로 인종, 민족, 문화, 경제적 기준에 의해 주류집단에서 벗어난 계층의 집단을 일컫지만, 소외계층을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으로 정의하는지는 나라와 문화마다 차이가 있다. 다문화 민족이 많은 미국의 경우 흑인들과 히스패닉계 학생들, 미국 인디언과 같이 인종이나 민족을 근거로 소외계층을 나누기도 하고,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들이나 빈민층 학생들, 혹은 특정 지역 거주 학생(시골이나 보호구역 등)과 같이 문화나 경제적 근거로 소외계층을 나누기도 한다(Ford, Grantham, & Harris, 1996).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소외계층 영재를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환경, 다문화가정의 학생, 지리적으로 영재교육 접근성이 제한된 도서벽지의 학생, 장애가 있는 학생, 북한 이탈 주민, 특정 영역에서 수혜가 부진한 학생들로 영재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계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라 소외계층 음악영재를 정의하자면, '음악적 영역에서 여러 상황으로 인해 영재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음악영재는 음악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곡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해석하며, 뛰어난 연주 기술로 음악을 표현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곡을 해석하면서 지속적인 동기로 주어진 곡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을 말한다(이선영, 2012; Kay & Sobotnik, 1994). 음악영재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음악을 접할 환경적 요인과 인적 요소, 교육여건 등과 함께 자아개념, 용기와 같은 성격요인이 필요하다(김성혜, 이경진, 2014; Renzulli, 1999). 하지만 소외계층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교육적 여건, 개인적 상황과 예술분야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소외계층 학생들

이 음악분야 영재교육에 진입하는 것은 힘든 편이다(석문주 외, 2017).

소외계층 연구들은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학생의 미래 성취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학자들은 타고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적절한 교육적 기회를 받지 못하면 일반 교육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물리적 환경 때문에 자신의 잠재능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미성취 영재아로 남을 수 있다고 한다(Perino & Perino, 1981). 음악교육학자들은 음악적 적성은 7세 이전에 발달한다고 하는데, 소외계층 학생들은 음악영재성을 타고 났다 하더라도 교육적 지원이나 관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자신의 재능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잠재성을 발현하기 어렵고,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중도에 그만두기도 한다(석문주 외, 2017).

더 안타까운 것은 소외계층 학생들은 예술적 재능을 계발할 기회뿐 아니라, 문화 소비자로서의 예술을 접할 기회조차 거의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학교 밖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문화예술을 체득할 기회보다는 사교육이나 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문화적 자본을 축적하는 경우가 많은데(이호영, 서호석, 2011), 소외계층 학생들은 문화 예술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조차 없다면 이 분야의 재능계발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교육계는 소외계층 학생들 중 영재성을 보이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제 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소외계층 영재들을 위한 맞춤형 선발 지원과 함께 인문, 사회, 예술 등 분야별 영재교육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23). 공교육에서는 영재성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영재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부분 수학, 과학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23). 2022년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전체 대상자 72,518명 중 음악 분야로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전체 영재교육 수혜자 학생의 1.7%인 1,644명에 지나지 않는다(한국교육개발원, 2023).

그러다 보니 음악에 영재성을 지닌 학생들은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을 많이 받게 되며, 학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음악분야의 재능 개발과정과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소외계층 음악영재들에 대한 연구는 이들을 선발하는 방식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성혜(2014)는 소외계층 음악영재들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음악영재성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적인 경험이 부족하므로, 음악적 능력을 평가할 때에 실기 능력 외에도 성격이나 동기적 특성을 보고 선발할 것을 권유한다. 김지혜(2016)도 소외계층 음악영재들의 교육적 접근 기회의 불리함을 지적하며, 실기에 의한 선발보다는 음악적 과제집착력과 동기와 같은 잠재력을 고려한 음악영재의 선발을 제안하고 있다. Renzulli(2007)가 제시한 영재아 행동특성 평정 척도에서도 음악적 특성분야에서, 연주에 대한 선호, 음악적 지각력과 기억력, 악기 연주 선호, 리듬에 대한 민감성과 예민한 청지각 능력과 함께 음악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음악 활동에 대한 열정을 물어보고 있다. 원영실(2012) 또한 음악영재들은 음감이나 청음, 리듬감, 작곡, 독보 등과 같은 음악 관련 역량뿐 아니라 열정이나 호기심, 감수성, 기억력, 이해력 등의 일반 영재들이 보이는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어, 영재판별 시에 소외영재들의 성격적 특성과 태도를 살펴보라고 권유하고 있다.

2. 소외계층 음악영재를 위한 교육 효과

소외계층 음악영재들에게 제공하는 음악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음악적 전문성과 음악적 역량 향상을 높이는 한편, 일반적인 역량과 성격적 특성 발달에 도움을 주고,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음악은 마음속의 감정을 비언어적인 수단으로 적절하게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향상시키고

(이선화, 1999), 음악 활동은 이해력, 사고력, 집중력을 향상시켜 아동의 인지발달이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한다(이선화, 1999; 정미라, 2006; Hallam, 2010). 음악 활동에 참여한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추론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고(Bilhartz, Bruhn, & Olson, 1999), 시공간 추론 능력(Rauscher et al., 1997), 언어적 기억 능력(Ho, Cheung, & Chan, 2003), 언어 발달, 읽기, 셈하기(Hallam, 2010) 등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한 아동들은 참여하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학습 동기, 학습 태도, 학습 행동, 학습 기술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 점수도 더 높게 나타난다고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심수민, 2008; 양종모, 2001; Fitzpatrick, 2006; Southgate & Roscigno, 2009). 음악 참여를 통한 성취감은 긍정적인 자기만족, 자기 인식, 자기 효능감, 강한 동기 부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Hallam, 2010).

음악의 아동 발달 영향력 연구들을 분석한 Hallam(2010)은 음악 집단 활동은 사회 기술을 습득하고 팀워크를 배우며 협동심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연주회에 참여하는 경험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여러 단원들이 결속력을 강화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방법을 알게 해 주고, 생각이 비슷한 또래들 간에 관계 형성과, 사회 관계망,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보호 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음악 프로그램 효과를 연구한 이선화(1999)는 시설 보호 아동들은 물질적 자원의 부족, 도움 받음의 익숙함, 낮은 자존감, 정서적 불안 등으로 타인을 돕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타인을 위로하고, 협력하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낮는데, 음악 집단 활동 후에 이러한 부정적인 특성들이 완화되었다고 한다. 김선하(2009)는 리듬악기 합주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들의 사회성, 지도성, 근면성, 사교성, 준법성 향상에 기여하였음을 제시하였다. 안은미(2016)는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교육활동은 빈곤 아동의 우울감과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인 대인관계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였다.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음악활동은 음악에 영재성을 가진 아동이나 청소년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음악집단 활동을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정서적 안정감,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의 개발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소외계층 음악영재 교육의 국내외 사례

1. 소외계층 음악영재를 위한 국내 프로그램 사례

음악영재들을 위한 교육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예술 특성화 중고등학교나 특정 기관의 산하에서 운영하는 음악영재교육원 등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주체 방식의 프로그램과,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의 금호영재 콘서트와 같이 연주 관련 내용을 지원해 주는 지원방식의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인 음악영재 지원 프로그램인 금호영재콘서트는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영재발굴사업 중 하나로 국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예술, 학술 등의 발전을 위한 문화 관련 활동의 참여 및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호영재콘서트에서는 14세 미만의 음악영재를 선발하여 음악영재에게 ‘무대경험’이라는 동기 부여를 제공하고 영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독주회 및 다양한 음악회를 지원하고 있다(이인구, 2013; 주현정, 김중규, 2015). 다만 금호영재콘서트의 경우, 지원 자격을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등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따로 한정하지 않고, 1시간 가량의 독주 역량을 선발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사교육 개입이 거의 필수적이라 소외계층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피아노 없는 피아니스트’로 유명했

던 문지영 피아니스트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재능을 꽃피워서 금호영재콘서트에 서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환경이나 주변의 지원 없이 음악적 역량을 기른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외계층 학생들 중 음악에 재능있는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대체로 두 종류로 구분된다. 첫번째는 참여학생의 일정비율을 사회적 배려대상 음악영재 학생에게 배정하여 일반 영재 선발시에 함께 선발하는 방식이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학급과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만을 위한 별도의 영재학급을 편성하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정원의 5~20% 내에서 우선선발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소외계층 음악영재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서울고대 음악영재교육원, 숙명여대 음악영재원, 경인고대, 강남대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배려대상 음악영재들만을 독립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선영, 2012)으로, 지원자격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명시한 정의를 참고하여, 해당 영재교육원에서 정하고 있다. 사회적 배려대상 음악영재들만을 위한 교육 중 대표적 기관으로 한국예술영재교육원과 건국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중증장애인)와 교육기회균등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포함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선발된 학생들은 방과 후나 주말에 전공별 실기지도와 이론, 그리고 기초예술성과 반성적 사고능력을 계발하는 수업을 받는다.

그 외에도 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음악적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El Sistema)를 모티브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의 '꿈의 오케스트라'를 비롯하여, 세종문화회관 지원의 '세종 꿈나무 하모니 오케스트라', 서울시(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우리동네 예술학교(구.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의 ‘하모니네이션’, 함께걷는 아이들의 ‘올키즈스트라’ 등 민·관 차원에서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차문호, 2017).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소외계층을 위한 악기 연주와 음악 지식의 이해라는 목적과, 연주를 통하여 사회성과 타인에 대한 이해 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차문호, 2017), 영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음악에 관심있는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음악적 재능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영재교육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꿈의 오케스트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를 벤치마킹하여, 2010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시작했다. 2011년 전국 9개 거점기관에서 80명의 교육인력과 470명의 수혜아동으로 시작한 꿈의 오케스트라는 현재 총 51개 기관에 3,000여명의 아이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성장하였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문화재단과 국공립교향악단, 문예회관 등이 운영주체가 되어,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이나 문화소외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차상위, 조손, 다문화, 한부모가정 아동, 장애아 및 기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단원은 초등학교생들이며, 모집후 악기 무상지원과 기초교육을 통해 파트를 선정하기 때문에 악기교습 경험이 없는 아동도 지원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통과한 학생은 면접으로 선발되는데, 아동의 음악적 관심, 의지, 학부모의 교육 및 참여노력의지 등을 살펴본다. 각 파트별로 책임강사, 보조강사를 채용하여 주 2회의 파트교육과 전체 합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오케스트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동들이 음악을 즐겁게 누리고 음악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고취하여, 지역사회의 문화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은 7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하는 연주, 강사-아동간 일주일에 최소 6시간 만남 진행, 음악적 성취와 공연, 참여와 통합, 상호학습과 리더십, 음악을 통한 즐거움, 사회 변화가 그것이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음악지식, 음악태도, 음악향유, 음악 활동을 통해 아동을 음악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한편,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가족, 학교,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형성하고, 상호간에 신뢰를 형성하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등의 여러 긍정적인 효과들을 보인다(임영식, 정경은, 임승희, 2020). 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악기를 접하고 음악영재성을 확인한 소외계층 학생들 중에는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여 전문 연주자의 길을 가기도 한다.

나. 건국대학교의 ‘서울시 음악영재장학생’

건국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과 서울시는 2008년부터 경제적 여건 등으로 체계적 교육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음악영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지원하여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울시 음악영재 장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피아노, 성악, 관현악, 작곡, 국악을 전공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저소득층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서류전형은 통과한 학생들은 1차 전형에서 조성, 리듬, 선율, 구조를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평가하는 음악적성인지검사를, 2차 전형에서 실기시험과 심층면접을 받는다. 건국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 미래영재프로그램에서는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음악적 소질을 보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의 학생을 전공영역 없이 음악적성인지검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면접을 통해 음악적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한 다음, 음악적 창의성과 전공 레슨을 통해 음악적 능력을 신장시킨다(김지혜, 2016).

음악영재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국내, 외 석박사급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에게 일대일 사사교육으로 실기 전문교육을 받고, 통합이론, 창의성 프로그램, 재능 나눔 연주회, 국악, 발상의 표현 등 다양한 음악교육 프로그램과 무대 경험을 통해 실기와 음악적 소양을 쌓을 기회들을 갖는다. 통합이론 과정은 학년군별로 이루어지며, 초등학교 3-5학년은 ‘음악 만나기’,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은 ‘음악 이해하기’,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1학년은 ‘음악 즐기기’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석문주 외, 2017). 방학에는 여름집중 교육으로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과 같은 큰 무대에 서는 경험도 할 수 있다. 무대연주는 음악가로서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동기부여가 뚜렷한 경험이기 때문에, 음악에 영재성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 영재성을 확인한 학생들은 국내 유수의 음악경연대회나 예술 특수 목적 학교들로 진학하고 있다.

다. 함께걷는 아이들의 ‘올키즈스트라’

‘모든(All) 아이들(Kids)의 희망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Orchestra)’라는 뜻의 올키즈스트라(Allkidstra)는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 아이들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악기지원, 음악교육, 합주, 관악단 활동의 경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제공하는 통합적 음악교육프로그램이다. 올키즈스트라는 악기를 통해 연주와 관악단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조화로운 삶’과 ‘배려’를 학습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악가로 성장하게 하기보다는 공동체 속에서 양보하고 협동하면서 전체의 목표를 이루어 가는 과정을 학습하는 데 더 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음악을 통한 정서순화와 전인격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2009년 지역 아동·청소년 관악단으로 시작한 올키즈스트라는 2012년에 각 지역에서 활동하던 아이들 중 실력있는 학생들을 정예단원으로 선발하여 상위 관악단(Honor Band)을 창단하였다. 올키즈스트라는 관악기로만 합주단을 구성하는데, 관악기가 합주실력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악기보다 짧고, 악기를 관리하기 쉬우며, 일반 관현악단에 비해 다양한 레퍼토리를 다룰 수 있어 소외계층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재능 및 열정 발산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석문주 외, 2017).

상위관악단과 음악적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꿈나무반,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전공생 지원사업'으로 구성되는 올키즈스트라는 전국에 5개의 지역관악단과 5개의 미니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13개의 기관에는 연주활동을 지원하는 음악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키즈스트라는 10년을 기본 단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유원선, 2017), 지속적인 지원과 활동을 통해 여러 연령층의 학생들이 함께 활동하면서 선후배간의 멘토링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라. 세종문화회관의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는 문화로부터 소외된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의 유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경험을 통해 전인교육을 실현하고, 재능을 발굴하여 꿈과 희망을 실현하려는 프로그램이다. 세종문화회관의 청소년 예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에 창단한 '세종 나눔 앙상블'에 이은 세종문화회관의 두 번째 한국형 엘 시스템아 프로그램이다. 2010년 서울지역 8곳의 지역아동센터 소속 45명의 아이들로 시작한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접 운영한다.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기관들을 이용하

는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매해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고 있다.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는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이 음악을 배우며 함께 어울려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아동의 예술기량 함양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음악적 경험으로 단원들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할을 배우고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종문화회관의 연습시설을 활용하고 전문강사의 지도로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어 소속 학생들의 자부심이 매우 높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정기연습을 하고, 여름에는 집중캠프를 실시하여 1년에 1회 세종문화회관에서 정기연주회를 가짐으로써 학생들에게 무대에 서는 기쁨과 자부심을 주고 있다.

마.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우리동네 예술학교(구.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우리동네 예술학교는 2009년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공익교육 형태의 문화복지사업이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특별시와 시범자치기구의 유기적 협업체제인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다. 2014년부터 ‘우리동네 예술학교’라는 명칭으로 운영은 자치구에서 직접하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은 관리 감독을 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의 사회취약계층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주 대상이며, 8개 자치구에서 약 3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뮤지컬 활동 등을 지원받고 있다. 학생 교육은 사회취약계층 아동 60% 이상을 포함해 서울시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신규 선발은 초3-초6)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동네 예술학교의 목적은 오케스트라 교육, 뮤지컬교육과 합주 연주 및 공연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키우고 건강한 인성을 함양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하게 하는 것이다. 주 2회, 회당 3시간의 정기교육을 받고 자체 발표회를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음악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음악회 참여 경험이 부족한 일반 학생들을 음악회에 초대해 음악적 소양을 길러주고, 음악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한정섭, 신혜원, 2019).

2. 소외계층 음악영재를 위한 해외 프로그램 사례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 중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은 엘 시스템이다. 1975년 경제학자이자 음악가였던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가 베네수엘라 빈민가 아이들을 위해 설립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이다. 스페인어로 시스템을 의미하는 엘 시스템은 마약과 폭력 등의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비전과 꿈을 심어주고 아동과 사회를 함께 변화시켜 가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지휘자 두다멜이 탄생했으며, 엘 시스템에 자극을 받은 각 나라들에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여러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김현미, 민경훈, 2014). 나라별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자.

가. 미국 뉴욕의 ‘Opportunity Music Project’

미국 뉴욕시 문화국에서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으나 악기를 배울 기회가 어려운 뉴욕시의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무료로 개인 레슨을 해 주는 Opportunity Music Project(OMP)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 4월에 설립된 OMP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5세부터 15세의 뉴욕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최고 수준의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연주자들의 악기 레슨과 음악 멘토링, 실내악지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주로 5세-8세 아동들이 오디션과 부모 면접을 통해 선발되는데, 매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의 개인 레슨을 받는다. 이 외에도 학생들과 그 가족들은 뉴욕시의 음악회를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부모들에게는 전문 음악인들의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OMP에서는 음악을 하는 데에 가족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의 참여를 강조한다. 부모들이 아동의 연습에 함께 참여할 때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여 부모들을 아동의 모든 레슨과 음악회에 참여시킨다.

OMP의 사명은 모든 아동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음악을 추구하고, 악기를 배우는 데 필요한 레슨을 받게 한다. 그렇게 익힌 음악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료 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OMP는 음악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정, 노력, 기회의 3 요소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과 음악에 대한 강한 열의가 있어야 한다. 열정과 노력을 하는 학생에게 OMP는 레슨을 제공하지만, 악기연습을 해 오지 않거나 음악에 열의가 없어 보이는 학생은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킨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음악을 노인들과 홈리스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 집단을 위해 들려주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자신들이 받은 혜택을 지역사회를 위해 되돌려 주면서 리더십 기술과 책임감을 배우고 있다.

OMP의 교사들은 현직 교수, 전문 음악인 등 음악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OMP에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중 앰배서더 프로그램(Ambassador program)은 OMP 교수진들을 도와주는 줄리아드 음악원의 대학생 튜터들과 짝이 되어 함께 연습하는 프로그램이다. 음대생들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사이의 학생들에게 정서 교육과 음악 레슨을 실시한다.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일대일 레슨을 제공하고, 음대생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는 값진 경험을 갖게 한다. 이 외에 고등학생들과 함께 연습하는 H.S. 멘토 프로그램도 있다.

OMP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은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이다.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은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의 세 수준으로 나누어져 있다.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과 부모들은 함께 음악을 만들어 가고 우정을 쌓으면서 집단 소속감을 높인다. 또한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함께 음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멘토십을 기르고, 책임감과 인내심, 서로를 배려하고 지지하는 기술들을 익히게 된다.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카네기홀이나 대학, 병원 등에서 연주를 기도 하는데, OMP에서 활동한 학생들은 줄리아드 음대의 Music Advancement 프로그램이나 뉴욕시의 유명한 청소년 오케스트라인 InterSchool 오케스트라의 오디션을 통과하고 있다.

나. 미국 줄리아드 음악원의 ‘Music Advancement Program’

줄리아드 음악원의 Music Advancement Program(MAP)은 뉴욕 5개구와 인근 주에 살고 있는 학생들 중 예술적으로 탁월한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무료 토요일 음악교육 프로그램이다. 1991년 줄리아드 음악학교 전 총장이었던 폴리시(J. W. Polisi)는 뉴욕시 공립학교의 음악교육 예산이 대규모로 감액된 것에 대한 반발로 MAP를 시작하였다. 음악교육 예산 삭감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소외계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맨하튼, 퀸즈, 브롱스 지역의 40명의 학생들을 모아서 MAP를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악기 연주 경험이 있어야 하고, 음악에 대한 적성과 열정과 함께, 부모의 강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MAP의 사명은 소외계층 음악학생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음악을 제공하여, 이들이 예술가, 지도자, 글로벌 시민으로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소속된 모든 학생들은 음악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중급과 고급수준의 학생들에게는 개인 레

슨과 음악이론 청음 훈련, 앙상블 연주, 연주 기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엄정한 교육과정을 무료로 제공한다. 줄리아드 음악학교의 헌신적인 교수진과 대학생들이 강사와 멘토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음악교육을 도와준다. MAP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매년 줄리아드나 링컨센터 등의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줄리아드 대학생들의 공연에 함께 참여한다. MAP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은 우수 음악원 예비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여름 음악 프로그램이나 대학교 및 음악원의 입학에 위한 오디션을 통과하고 있다.

다. 미국 교향악단의 소외계층 음악영재 프로그램: 'Youth Orchestra LA'와 'Tune up Philly'

LA교향악단은 2007년부터 미국 LA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엘 시스템마형 프로그램인 Youth Orchestra LA(YOLA)를 운영하고 있다. LA교향악단이 전체기획을 하고, 지역교육센터나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음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YOLA는 '삶을 바꾼다.'라는 구호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악기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자기 계발과 사회성 함양을 높이고 있다. YOLA는 음악을 통하여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 뿐 아니라 그 가족,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의 성장을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YOLA 프로그램에는 LA 인근 5개 지역에서 매일 방과 후에 5세에서 18세 사이의 1,7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주 12시간에서 18시간 사이의 집중적인 음악레슨과 합주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음악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

2010년 필라델피아 청소년 교향악단(Philadelphia Youth Orchestra, 이하 PYO)에서는 필라델피아 지역에 엘 시스템마형 프로그램인 튠업 필라델피아(Tune Up Philly, 이하 튠업 필)를 설립하였다.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음악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설립된 PYO

의 6개의 앙상블 중 하나인 튜업 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필라델피아 지역 230여명의 학생들에게 방과후에 음악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방과후에 2시간의 레슨을 일주일에 3회 실시하고, 토요일에는 주 1회의 합주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튜업 필은 음악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협동심, 팀워크, 학업 성취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내의 변화를 이끌고, 지역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계속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라. 캐나다의 ‘Sistema New Brunswick’

캐나다의 대표적 엘 시스템아 교육사업인 ‘Sistema New Brunswick (Sistema NB)’은 2009년에 시작하였다. 주정부와 지역 민간단체들의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는 Sistema NB는 뉴브런즈윅 주정부에서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민간 지역의 여러 후원으로 운영 중이다. Sistema NB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아동 1,000여명이 방과 후에 무상으로 음악교육을 받고 있다. 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학생은 사전에 악기나 음악적 경험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다.

주 5일, 하루 3시간의 집단수업과 합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각 센터마다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Sistema NB의 성공요인은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 교육청, 학교, 다문화 센터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음악 레슨을 제공하고 연습량을 많이 할당하는 것이다. Sistema NB 학생들은 연주 기술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태도나 습관, 상호존중과 배려, 협동 교육도 함께 배우고 있다.

마. 영국의 'Sistema Scotland'

시스템아 스코틀랜드는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 엘 시스템아형 프로그램으로, 현재 회장인 리차드 홀로웨이(Richard Holloway)가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을 롤모델로 삼아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다. 2008년 4월 당시 스코틀랜드 예술위원회장이었던 홀로웨이는 영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인 래플록(Raploch)에 첫 파일럿 프로젝트인, 현악앙상블 '더 빅 노이즈(The Big Noise)'를 창설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공적 기금과 사적 자금의 매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정부와 지역 단체들과 연계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의 형태로 음악레슨과 합주를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음악으로 아이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변화를 이루며,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함께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양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시스템아 스코틀랜드의 목표는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아이들의 팀워크와 집중력을 향상하고, 연주활동의 기회와 무대경험을 통하여 아이들의 자존감과 자신감,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것이다. 또한 스코틀랜드 전역으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음악으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족 응집력을 높이며, 더 나아가 지역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의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 1,2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중에 매주 3회, 총 7시간의 집단레슨과 주 30분의 개인레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연간 최소 6회 이상의 공연 관람 및 무대 연주를 보게 하고, 부모들은 성인 오케스트라에 참여시켜 아이들이 받는 음악교육을 경험해 보게 하고 있다. 시스템아 스코틀랜드에서는 학생들의 교육뿐 아니라 강사들의 역량 개발 교육과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런 점들이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022년 6월에 영국 정부는 ‘음악 교육을 위한 국가 계획: 삶을 변화시키는 음악의 힘’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정부의 우선순위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육에 두겠다고 하였다.

바. 독일의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교육 ‘문화가 강하게 한다’

독일 국립교육보고서는 독일에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의 약 3분의 1이 어려운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하거나 저소득층, 부모의 실업 및 이민 등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학생들에게 독일 연방교육연구부는 2013년부터 ‘문화가 강하게 한다(Kultur macht stark)’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독일에서 시행된 소외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프로그램 중 규모가 가장 큰 프로그램으로 3세에서 18세사이의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의 교육연구부가 권장하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성공적으로 진행된 후, 2018년에서 2022년까지 2차로 실시하였고, 2023년부터 앞으로 5년간 3차로 실시되고 있다. 2022년까지 약 백이십만명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무대로(연구)”, “모두를 위한 음악(합창과 기악)”등, 각 지역에 소재한 5천여 개의 교육 컨소시엄 체제에 의한 4만여 개가 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한정숙, 2023).

‘문화가 강하게 한다’ 프로그램은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환경에 상관없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과 청소년 94%가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문화교육을 전혀 접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으며, 89%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은 가능한 대상

학생의 상황과 교육적 요구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대상 학생을 만나 프로그램에 관해 협의하고 사전 체험 프로그램으로 동기를 유발하는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다. 일일체험, 방학중 프로그램, 6개월 이상의 코스와 워크숍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참여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요시하여 그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점이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문화가 강하게 한다’ 프로그램은 전문 문화 예술단체, 아동 청소년 복지 기관, 교육기관 등의 서로 성격이 다른 세 개 이상의 기관들이 한 팀을 이루어 협업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된다.

독일 연방 중앙정부 미디어문화부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4가지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을 강조한다.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집단 없이 전 국민이 문화를 배우고 즐기도록 ‘문화예술교육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는데 중점을 둔다. 둘째,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뛰어난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한다. 셋째, 각 연방에서는 ‘문화전달’을 중요한 목표로 대형 프로젝트들을 진행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악기 하나씩(Jedem Kind ein Instrument)’ 등이 있다. 넷째, 국민들의 문화예술적 잠재력을 키우는데, 특히 문화 소외 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이승진, 2019).

이런 정책으로 나온 것 중 하나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에서 운영하는 ‘모든 아이에게 악기, 춤, 노래를 (Jedem Kind Instrumente, Tanzen, Singen, 이하 JeKits) 프로젝트’이다. 이는 학교 밖 음악학교, 무용연구소 등의 교육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정규 음악 수업과 방과 후 프로그램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악기를 가르치는 문화 예술교육이다. 2년 프로그램으로 계획되며, 초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년차의 수업은 무료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2년차는 이 활동에 관심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합창단 등의 심화

과정으로 진행된다. 전문 음악강사가 주 2회 45분씩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저소득층, 이민자와 난민 가정 등 문화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예술의 영역을 체험하게 하고 그 안목을 높여준다는 점에서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사. 프랑스 문화예술기관의 ‘참여적 플랫폼’

프랑스 정부는 2000년에 5개년 계획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학교수업과 전문 문화예술활동간의 개방과 교류를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예술과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우선적으로 소외 지역부터 예술문화교육을 실시하자고 하였다. 이 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성되는데 이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프랑스에서 음악과 무용교육으로 대표적인 기관인 국립 콩세르바투아르(Conservatoire)와의 연계이다. 프랑스 문화부 산하의 직속 국립 교육기관인 국립 고등 콩세르바투아르는 파리과 리옹에 하나씩 있는데, 하부 조직으로 44개의 지역 콩세르바투아르와 109개의 도립, 338개의 시립 콩세르바투아르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국립 고등 콩세르바투아르에서는 프로 연주자, 안무가, 교육자, 이론가들을 양성하고, 일반 콩세르바투아르에서는 아마추어 음악인과 무용인을 양성하고 있다. 일반 콩세르바투아르는 5살부터 등록이 가능하며, 음악 교육의 경우, 1주일에 악기 레슨 1회, 이론 교육 1회, 오케스트라 참여 1회로 구성되며, 각자 자신이 사는 동네의 콩세르바투아르에 선착순으로 등록을 하면 된다. 일반 콩세르바투아르 등록비는 각 가정의 수입에 따라 10단계로 나누어서 차등으로 지불한다. 교육은 3개 사이클로 구성되며, 한 사이클을 마칠 때마다 콩쿠르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이 입증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비용이 저렴하고 우수한 교수진이 가르치므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일반 학교에서는 음악과 무용 분야에 관심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학급인 Classe CHAM(이하 CHAM)을 각 지역마다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콩세르바투아르 근처에 있는 공립학교에 CHAM을 설치하도록 지정한다. 학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음악이나 무용시간을 좀 더 할애하는 구조로 진행되는데,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직접 콩세르바투아르로 이동하여, 수업을 받게 된다. CHAM의 운영을 맡은 학교는 매 학년마다 한 반을 CAHM으로 지정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에도 CHAM을 갖춘 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에는 초등학교 때보다 CAHM을 갖춘 학교 수가 줄어들는데, CHAM이 없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악기를 계속 배우고 싶은 학생은 인근 콩세르바투아르에 등록하여 배울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CAHM에 속한 학생들의 악기는 콩세르바투아르에서 대여해 줌으로써, 저소득층 학생이라도 음악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전문 음악인의 지도를 받고 오케스트라에 참여할 수 있다(예술과 도시사회연구소, 2018).

이외에도 문화적 접근성이 취약한 도심 외곽 낙후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지역 교향악단이 주관하는 오케스트라를 통한 사회적 음악교육 프로젝트인 Dispositif d'éducation musicale et orchestrale a vocation sociale(Demos)가 있다(주프랑스 한국문화원, 2018). Demos는 파리 필하모닉-음악의 전당(La Cité de la musique-Philharmonie de Paris)이 주관하는 프로젝트로 문화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제휴단체의 후원으로 2010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누구나 음악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교육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7세에서 14세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주 4시간씩 방과 후 악기수업을 실시한다. 두 명의 전문 음악인과 한 명의 사회·문화 분야 전문가가 15명 정원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이후 같은 악기별로 2~3명의 소그룹 연습으로 이루어진다. 매달 한 번은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합

게 모여 오케스트라 연습을 진행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은 매년 정기연주회에 참여한다.

이 프로젝트는 점차 확대되어 프랑스 전역의 오케스트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클래식 음악을 더욱 친숙하게 접하게 하고,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전문적인 문화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학생 중 50%는 이후로도 음악 실습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중 70%는 그 다음 해의 프로젝트에 재등록하는 등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음악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IV. 국내외 사례로 살펴 본 소외계층 음악영재 육성 시사점

본 연구는 소외계층 음악영재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국내외의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음악영재교육 프로그램이나 음악교육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들을 살펴 본 후 얻게 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소외계층 학생들은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어 이 분야의 영재성을 확인할 기회를 갖기 힘들기 때문에, 음악과 관련된 외적 자극과 음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하다(이경진, 최진영, 최나영, 2014). 프랑스나 미국의 경우를 보면, 방과 후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상의 악기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독일의 한 프로젝트는 초등 1학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악기를 배우게 한 다음, 더 배우고 싶은 학생은 심화 단계로 연계해 주고 있다. 저학년 소외계층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음악을 접할 기회를 갖는다면, 재능을 가진

소외계층 영재들을 더 많이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많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음악영재들을 위한 본격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지역 오케스트라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음악을 접할 기회를 많이 만들고, 악기와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저명한 음악원과 시립 오케스트라들은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초청강의를 열고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음악분야의 재능을 찾는 학생의 수가 늘어나서 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영재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다.

둘째, 소외계층 음악영재를 발굴할 때에는 현재의 음악적 기량으로 선발하기보다 음악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재능이 보이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제안한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악기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레슨을 진행하는 동안에 음악적 능력이나 음악적 지각력을 살펴보고, 음악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높은 학생을 선발하는 선교육 후선발 방식의 선발이 가능할 것이다. 음악적 영재성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발견하는 것이 재능발현에 유리하므로 가능하면 유치원 단계의 학생들에게 악기교육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선발시에는 여러 국내외 소외계층 음악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아동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끈기, 집중력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음악영재의 특성은 다른 분야의 영재, 특히 과학분야 영재의 특성 과도 공통점이 있다. 미국 뉴잉글랜드 음악원(NEC)의 러셀 셔먼 교수는 “제 스승인 에드워드 스토이어먼은 셸록 홈즈의 추리소설을 많이 읽으라고 권했다. 탐정이 사건의 단서를 찾듯이 세상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능력을 키우라는 이유에서이다. 연주자도 그런 태도로 끊임없이 음악, 미술, 문학, 자연을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찰, 열정, 통찰, 창의력, 상상력, 끊임 없는 노력,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개성을 담아내는 것을 강조하는 점은

음악과 과학은 물론이고, 미술, 문학 등 영역에 관계없이 영재들을 위한 모든 영역의 '교육'에서 강조되는 점이다. 영재교육에서는 이런 열정과 호기심이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고, 이런 특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음악 재능이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노력과 함께 부모의 개입이 중요하다. 악기 연주를 성공적으로 익히기 위한 성공요인으로는 학생의 레슨 출석률, 실력 향상을 위한 규칙적인 연습, 흥미 및 재미와 같은 아동의 심리적 자세 등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꾸준한 프로그램 참여 및 연습은 연주 실력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연주에 즐거움과 성취감이 생겨서 더욱 연주활동에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게 되고, 이는 더 높은 차원의 아동의 태도 변화에 기여하게 된다. 이런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아동의 노력과 함께 부모나 보호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연구들은 소외계층 예술 교육에서 부모참여를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Clements, 2006), 부모들이 아동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아동의 성장과정을 이해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OMP 프로그램에서 음악교육에 부모의 참여를 중시하는 것처럼 소외계층 아동들의 악기 연습과 연주회에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격려하는 것은 아동의 재능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소외계층 음악영재들의 발굴과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하여 지역 사회 음악전문가 및 전문단체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시립교향악단에서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음악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 전국적으로 학교, 전문기관, 교육행정기관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음악에 영재성을 보이는 학생들이 체계적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음악 영재성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음악 영재성을 지속하기 어렵다. 하지만 학교밖 전문 음악기관이나 전문

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면, 아동의 음악 영재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교육 제공과 함께, 아동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제시할 수 있어, 음악영재성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소외계층 학생들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지원체계 확보가 필요하다. 지역 교향악단이나 전문 음악기관들이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또는 기관적 차원이 지원이 필요하다. 재능을 가진 누구라도 자신이 처한 환경 때문에 재능을 개발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 특히 예술의 경우 그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자신의 능력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적 또는 기관적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 음악계에서 슈퍼스타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전국 초등학교와 아파트 근처에 산재해 있는 음악 학원들과 수준높은 원장님들의 안목이 큰 몫을 차지한다. 또한 재단이나 기관들에서 적극적으로 예술을 알리고 그 분야의 재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춘 다음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점도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더 많은 소외계층 음악영재들이 발굴되기 위해서는 공립학교에서 재능 발굴 기회를 갖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LA 필하모닉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이 베네수엘라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테마를 통해 재능을 개발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초등학교와 학교밖 전문음악기관과의 연계를 보다 활성화하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소외계층 음악영재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강사들에게 프로그램 참가 전 소외계층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경제적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음악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가장 의미있었던 것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참여와 전문적 교사와의 만남이라고 대답하였다. 음악영재성은 수준높은 전문실기교사와 만나면서 자

신의 음악적 재능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로부터 발달하기 때문에(박수민, 진석연, 2019) 전문음악인과의 만남은 매우 중요하다.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미국 Metropolitan Youth Orchestra(MYO)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연구(Clements, 2006)에서도 성공의 주요 요인은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높은 헌신과 참여 강사들이 '사업의 목적과 가치에 공감하고 애정과 열정을 쏟은 점'을 꼽았다. 소외계층을 지도하는 전문강사들의 지도 방법이나 성품 및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외계층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문 강사들을 위한 워크숍이나 동료장학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김진수, 최나영, 2022), 프로그램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Tannenbaum(1986)은 영재성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특성으로 뛰어난 일반지능, 특수분야의 적성, 성격적 특성, 환경, 기회 또는 행운을 들었다.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는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재능과 영재성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 외에도 음악을 포함한 예술은 소통과 공감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소외계층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한다(이예스더, 홍정은, 2012). 음악영재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재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국가와 학교, 여러 기관 및 단체가 더 많은 기회들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23).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23-2027) 발표**. 교육부 보도 자료.
- 김선하 (2009). 리듬악기합주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1), 40-59.
- 김성혜 (2012). 음악영재교육과정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음악이론연구**, 19, 140-178.
- 김성혜 (2014). 국내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내재적 특성 탐색. **영재교육연구**, 24(6), 1073-1097.
- 김성혜, 이경진 (2014). 사회적 배려대상 음악영재의 환경요인 특징 탐색. **영재교육연구**, 24(4), 629-655.
- 김지혜 (2016). 소외계층 음악영재를 위한 선발 방향 제시. **이화음악논집**, 20(1), 69-107.
- 김진수, 최나영 (2022). 사회취약계층 음악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 분석. **예술영재교육**, 7, 5-35.
- 김현미, 민경훈 (2014).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 분석 및 우리나라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에 관한 논의. **문화예술교육연구**, 9(5), 21-39.
- 박수민, 진석언 (2019). 음악영재들이 경험한 사회적 배려대상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의미 탐색. **영재와 영재교육**, 17(4), 95-121.
- 석문주, 신지혜, 정재은, 최미영 (2017). 사회적 배려대상 음악영재의 음악성 발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음악교수법연구**, 18(1), 87-116.
- 심수민 (2008). 초등학교의 관현악 합주 활동이 인지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음악응용연구**, 1, 87-105.
- 안은미 (2016). 지역사회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과 빈곤아동 발달. **한국사회복지학**, 68(1), 225-248.
- 양종모 (2001). **음악과 교육목표 및 내용 체계연구(1): 한국 초중등 음악교육**

- 의 실태에 대한 양적 접근.** 충청북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원영실 (2012). 교사 관찰추천 예술영재 판별의 현황과 과제: 국악·서양음악·미술 영재를 중심으로. **국악교육**, 33, 157-201.
- 유원선 (2017). 국내 공적가치를 추구하는 오케스트라 교육의 다양한 모델과 성과 - 함께 걷는 아이들: 울키즈스트라. **2017 꿈의 오케스트라 지식 공유 포럼 자료집** (pp. 43-54).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이경진, 최진영, 최나영 (2014). 음악영재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교육목표 및 교과목을 중심으로. **영재교육연구**, 24(5), 807-827.
- 이선영 (2012).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판별모형 개발. **영재교육연구**, 22(1), 87-115.
- 이선화 (1999). 시설아동을 위한 음악활동 중심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아동교육**, 8(1), 131-142.
- 이승진 (2019).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방안**.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에스터, 홍정은 (2012). 방과 후 학교 예술교육을 위한 예술치료 프로그램 설계 -초등학교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10(1), 65-92.
- 이인구 (2013).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기업 메세나 활동의 역할: 금호아시아문화재단의 사례. **문화산업연구**, 13(3), 115-120.
- 이현주, 이미나, 이화선 (2010). 예술영재의 개인 및 환경적 특성 탐색: 음악, 미술, 무용영재를 중심으로. **영재교육연구**, 20(2), 547-570.
- 이호영, 서우석 (2011).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문화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5(1), 91-118.
- 임영식, 정경은, 임승희 (2020).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의 중단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61), 95-123.
- 정미라 (2006). 음악교육에서의 반주매체가 유아의 음악적 흥미와 능력에 미

- 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1(6), 413-433.
- 정한나 (2012). **F. Liszt 의 Hungarian Rhapsody No. 12 에 관한 분석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2018). **음악접근성 확대를 위한 프랑스 주요 문화정책 현황 조사**. 서울: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 주현정, 김중규 (2015). 기업의 융복합 문화경영이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3(8), 191-206.
- 차문호 (2017). 국내 엘 시스테마형 오케스트라 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2017 꿈의 오케스트라 지식공유 포럼 자료집** (pp. 19-32).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교육개발원 (2023).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KEDI 영재교육센터.
- 한정섭, 신혜원 (2019).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한 지역협력 문화예술 교육 활동 개발 및 효과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4(3), 75-98.
- 한정숙 (2023). 교육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독일의 문화예술교육과 시사점 연구 - 문화가 강하게 한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7), 428-437.
- Amos, S. L. (2021). *America Arts for All: Promoting Musical Opportunity and Equity for Socioeconomically Challenged Students*. Bachelor thesis. Eastern Kentucky University.
- Bilhartz, T. D., Bruhn, R. A., & Olson, J. E. (1999). The effect of early music training on child cognitive develop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4), 615-636.
- Clements, G. L. (2006). String training programs for underrepresented youth in American orchestras: Success factors in a metropolitan youth orchestra community program.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69), 51-62.

- Fitzpatrick, K. R. (2006). The effect of instrumental music participation and socioeconomic status on Ohio fourth-, sixth-, and ninth-grade proficiency test performanc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4(1), 73-84.
- Ford, D. Y., Grantham, T. C., & Harris, J. J. III. (1996). Multicultural gifted education: A wakeup call to the profession. *Roeper Review*, 19(2), 72-78.
- Hallam, S. (2010). The power of music: Its impact on the intellectual, social and personal development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28(3), 269-289.
- Ho, Y. C., Cheung, M. C., & Chan, A. S. (2003). Music training improves verbal but not visual memory: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plorations in children. *Neuropsychology*, 17(3), 439.
- Kay, S. I., & Subotnik, R. F. (1994). Talent beyond words: Unveiling spatial, expressive, kinesthetic, and musical talent in young children. *Gifted Child Quarterly*, 38(2), 70-74.
- Perino, S. C., & Perino, J. (1981). *Parenting the gifted: Developing the promise*. New York: Bowker.
- Rauscher, F., Shaw, G., Levine, L., Wright, E., Dennis, W., & Newcomb, R. (1997). Music training causes long-term enhancement of preschool children's spatial-temporal reasoning. *Neurological research*, 19(1), 2-8.
- Renzulli, J. S. (1999). What is this thing called giftedness, and how do we develop it? A twenty-five year perspective.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23(1), 3-54.
- Renzulli, J. S. , Smith L. H., White, A. J., Callahan, C. M., & Hartman, R. K. (2007). **영재아 행동 특성 평정척도** [이미순 역].

서울: 박학사 (원본출간년도: 1976).

Southgate, D. E., & Roscigno, V. J. (2009). The impact of music on childhood and adolescent achievement. *Social science quarterly*, 90(1), 4-21.

ABSTRACT

A Study on Music Programs for the Underprivileged gifted students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Ryu Jiyoung*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ffective approaches for recognition and cultivation of musically talented individuals from underprivileged background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t investigates how music talent education programs for underprivileged students are currently being operated, with the goal of identifying key insight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music education programs for underprivileged communities provide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engage with music, aiding them in discovering their musical talents. After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se programs, this study offers the followings : expanding opportunities for them to engage with music, proposing identifying criteria and educational methods for music talent program, encouraging parental involvement, fostering collaboration with other institutions, comprehensive national support, and providing pre-training for instructors. These suggestions collectively present effective educational strategies for underprivileged musically talented individuals.

Key words : Underprivileged gifted,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music education, Music education, Musically gifted student

1차 원고 접수 : 2023년 9월 15일

수정원고 접수 : 2023년 10월 12일

최종 게재결정 : 2023년 10월 23일

* Director, Gifted Policy Center, Global Institute For Talented Education, KAIST

